

마에다 가문의 지보: 손케이카쿠 문고

이시카와현립미술관 내에 있는 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에서는 마에다 가문이 수집한 고서적, 고문서, 갑옷, 진바오리, 그림 등을 소장하고 있는 ‘손케이카쿠 문고’의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체되는 전시품에는 마에다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갑옷과 투구, 진바오리, 가가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등자(안장 양옆에 매달아 발을 걸 수 있는 도구), 차도구, 산수화, 서예작품 등이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희귀한 공예 표본 소장품인 ‘햏코히쇼’가 전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장품에는 국보 22 점과 중요문화재 77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일 가문 컬렉션으로는 경이적인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의 대부분은 도쿄에 보관되어 있지만, 마에다 가문은 역사적으로 가나자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소장품 중 약 400 점의 미술공예품에 대해 소장 및 전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에도 시대(1603~1867) 초기까지 쇼군 가문에 버금가는 재력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유력 다이묘였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그 풍부한 자산을 예술진흥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많은 우수한 공예품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손케이카쿠 문고의 소장품 대부분은 제 3 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1594~1658)와 그의 손자인 제 5 대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1643~1724)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에다 가문의 소장품 일부는 에도(현재의 도쿄)에 있던 마에다 가문의 저택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막부는 각 다이묘들에게 1 년마다 교대로 에도에 근무하도록 하는 ‘산킨코타이(참근 교대)’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각 번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번과 에도 2 곳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번주의 아내와 후계자가 될 자녀를 에도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산 일부는 마에다 가문의 에도 저택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867 년 막부가 멸망했을 당시 손케이카쿠 문고 소장품의 일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가나자와 저택에 남아 있던 나머지 소장품들도 마에다 가문이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도쿄로 이주하게 되면서 함께 도쿄로 옮겨졌습니다. 1926 년 마에다 가문의 제 16 대 당주인 마에다 도시나리(1885~1942)는 가문의 컬렉션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에다 이쿠토쿠카이를 도쿄에 설립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손케이카쿠 문고에서는 소장품을 연구자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무사 가문이 자랑하던 명품들을 일반인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의 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이 유일합니다.